캔버스에 세운 탑, 대중을 위로하다

민화작가 송진석 초대개인전 '玄, 별 헤는 塔'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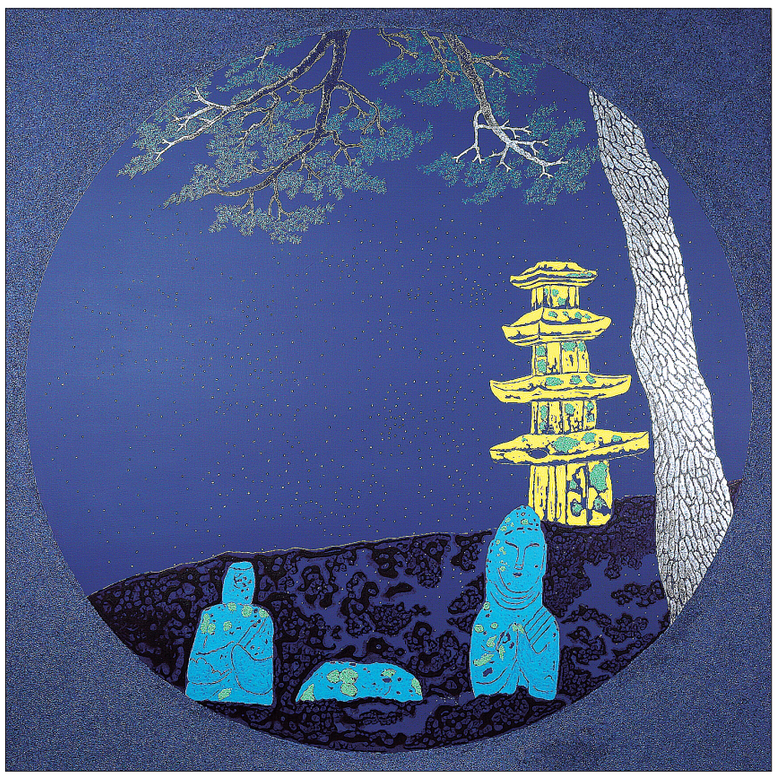
탑을 소재로 한 민화를 그리고 있는 송진석 작가가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모나리자 산촌에서 초대개인전 '玄, 별 헤는 塔'을 연다.

송진석의 그림은 전통 민화 속에 새로운 소재(탑과 별 등)를 등장시킴으로써 '신민화(新民畵)'를 선보이고 있다. 네 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에서 송진석은 두 번째 개인전 때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탑'을 소재로 한 민화 30여 점을 선보인다.

송진석은 화가로서의 자신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길고 긴 방황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운무 속에서 보게 된 석탑을 통해 긴 방황을 끝냈다. 이후로 송진석은 캔버스 위에 탑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니 탑을 세우기 시작했다. 송진석의 탑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탑이라기보다는 현세구복을 바라는 공덕탑의 의미가 더 크다. 많은 대중이 건강하고 행복한 꽃길만 걸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캔버스 위에 탑을 그리는 것이다.

11~20일 갤러리모나리자 산촌
탑 소재 新民畵 30여 점 전시
운주사 천불천탑서 영감 얻어
自己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내

일반적으로 석탑을 떠올리게 되는 탑의 이미지는 차갑고 무겁지만 송진석의 탑은 색과 이미지를 변형해 따뜻하게 느껴진다. 또한 탑의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탑을 해체하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무의식의 자기(自己)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탑이라는 물상으로 '형상 밖의 형상(象外之象)'을 나타내고자 하는 작업이다.


송진석 작가의 신민화 작품 '숨(91X91cm, 캔버스, 아크릴, 혼합재료, 2022)'

작품의 소재가 된 운주사 탑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으로 송진석 작가 자신의 정신을 담아 새롭게 구성한 무의식의 공간이다. '현(玄)'은 우주이며 심오한 내면으로 작품의 바탕색을 말한다.

탑의 표현에 있어서 점과 번짐의 혼용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무한한 경계로 확장되는 효과를 보여준다. 작가 자신이 인식한 탑은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의미를 넘어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표현으로 작가의 경험과 기억이 투영된 것이다. 작품에서 타분 기법과 번짐 기법, 점 등은 작가의 무의식을 표현한 조형 수단이다. 작가 자신의 내면을 함축적이고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송진석 작가는 "힘든 현실 속에서 행복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탑에 기댈 수 있고 위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나의 새로운 민화가 그들을 위한 숨 쉬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2)735-0312

국외소재재단 이사장 김정희 명예교수 임명



제4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에 김정희 원광대 명예교수〈사진〉가 임명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0월 1일 자로 제4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에 김정희(金廷禧, 1957년생) 원광대 명예교수를 임명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9월말까지 3년이다.

김정희 신임 이사장은 △한국미술사학회 회장 △문화재청 동산분과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위원 △조계종 성보문화재위원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원광대 박물관장 △원광대 인문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외소재 한국 문화재의 조사 · 연구, 환수 · 활용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2012년 7월에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이다. 신성민 기자

전통 '落火 의식' 재현…사찰 축제로 거듭

세종 영평사, 10월 2일
'정화의 불꽃 낙화' 축제

숯가루 넣어 만든 한지 봉투에
불을 붙여 불꽃을 보는 '낙화법'
사찰서 행했던 전통 정화 의식
市무형문화재 신청 등 보존 노력

"낙화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악업과 번뇌가 씻겨 나갈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밝은 마음으로 자비와 사랑을 전하십시오."

세종시 장군산 영평사 경내에 낙화(落火)가 반딧불처럼 흩날렸다. 10월 2일 진행된 제6회 낙화전통문화축제 '정화의 불꽃 낙화'와 코로나 극복 기원 산사음악회에서 선보인 낙화는 오랫동안 사찰에서 잊혀져온 문화를 사부대중과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올해 낙화전통문화축제는 역대 최대 인원이 몰려 경내가 인산인해를 이뤘다.

'낙화'는 숯가루와 소금 등을 한지에 넣어 꼬아 만든 봉투에 불을 붙여 흩날리는 불꽃을 보는 것을 말한다. 흔히 한국의 전통 불꽃놀이로 소개 되곤 한다. 현재 국내 각지에서 줄불놀이, 낙화놀이 등 민속놀이의 하나로 시연되고 있지만 원형은 모두 사찰에서 부처님오신날에 여러 재난과 악업을 소멸하기 위해 봉행되던 불교의식인 '낙화법(落火法)'이다.


세종 영평사는 10월 2일 제6회 낙화전통문화축제 '정화의 불꽃 낙화'를 개최했다.

불교의 낙화는 민간과 달리 심지에 진언이나 시주자의 이름 등을 쓰는 등의 구별되는 점들이 특징이다. 또 제대로 만들 경우 6시간이 넘게 오래 타오르는 것도 구별된다. 낙화에서 흩날리는 불꽃들은 보는 이들에겐 악업소멸과 재난의 정화를, 사찰 측은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액막이를 하는 의미가 있다.

사찰에서의 낙화는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이북을 중심으로 사찰에서 대대적으로 행해졌다고 한다. 영평사 측은 "이 낙화법은 50여 년 전 월남하신 노장스님이 전하신 방법"이라고 전했다. 현재 불교계에서 연례행사로 사찰에서 낙화를 행하는 곳은 이곳 영평사가 유일하다. 최근에는 영평사의 낙화법을 연구한 논문집도 출간됐으며, 세종시 무형문화재 등록도 신청했다.

이날 낙화들은 영평사 대웅보전 앞 특설 거치대와 경내 곳곳에 걸렸다.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을 증명법사로 결계의식을 진행해 이 낙화가 단순한 놀이가 아닌 불교의식임을 대중들에게 천명했다. 이후 수구다라니를 염송하면서 5가지 공양물을 화로에 태워 축원했다. 모든 의식이 끝난 후 낙화에 불이 붙여졌다. 특히 점화 후 30분가량이 지나 낙화불을 일시에 떨어뜨리는 순간, 대중들의 탄성이 경내에 터지면서 아름다움은 절정에 달했다.

이번 낙화축제는 SNS등을 통해 입소문이 나며서 역대 최대 인원이 몰렸다. 점화전 수구다라니 기도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경내는 인산인해를 이루어 절마당은 물론 맞은편 언덕까지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다. 서울에서 낙화를 보기 위해왔다는 한 여성은 "낙화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 이런 멋진 축제가 이어지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보러 오겠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국보 · 보물 성보, 이젠 3D로 만나세요

문화재청, '네이버 지식백과' 통해 3D 정보 서비스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경주 감은사지 동 · 서 삼층석탑' 등 문화재들을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3D콘텐츠로 만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오늘부터 디지털 기술로 제작된 3D 문화유산 정보를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볼 수 있게 됐다"고 10월 4일 밝혔다.

이는 문화재청이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와 지난 2014년 맺은 '문화유산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네이버 지식백과 서비스를 통해 문화유산 정보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3D콘텐츠를 서비스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3D콘텐츠는 문화유산 멸실이나 훼손에 대비하여 문화재청이 축적하고 있는 3차원 원형기록 자료를 토대로 제작됐다. 서비스되는 3D콘텐츠는 국보 24건과 보물 70건, 국가민속문화재 3건 등 총 100건이다.

주요 불교문화재로는 △경주 감은사지 동 · 서 삼층석탑(국보)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국보)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국보)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국보) 등이다.

이들 100건의 문화재에 대한 3D 콘텐츠는 경량화와 개방형 표준 적용 과정을 거쳐 다양한 기기와 접속환경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시대와 재질, 유형별 검색 등 네이버 지식백과의 다양한 지식검색 서비스와 연계해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현된 것이 특징이다.


3D 콘텐츠로 구현된 국보 경주 감은사지 동 · 서 삼층석탑.

김현숙 네이버 지식백과 리더는 "단편적 문화유산 정보에 고품질 3D 콘텐츠가 추가되며 문화유산과 관련한 지식백과 서비스의 품질이 대폭 높아졌다"며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력해 네이버 지식백과에 3D 문화유산 콘텐츠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무형유산 가을 장엄한다

삼화사 등 수륙재 봉행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기획행사가 10월 중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10월에만 볼 수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수륙재'다. 10월 9일에는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진관사 국행수륙재'를 봉행했으며, 10월 8일부터 9일까지는 경남 창원시 백운사에서 '아랫녁수륙재'를 설행했다.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강원 동해시 삼화사에서 '삼화사 수륙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전승자 주관 행사에서도 불교 관련 공연과 전시가 마련됐다.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보유자 채상묵은 10월 23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태평무 보유자 양성옥과 연합 공연을 진행한다.

불상 조각으로 잘 알려진 국가지정 문화재 목조각장 목아 박찬수는 경남 산천군 목아박물관에서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한다.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목조각 시연행사도 진행한다. 신성민 기자

현대불교신문과 함께하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2일


녹야원

부다가야

나란다대학터

바이샬리

쿠시나가르

타지마할

지도법사 : 대연스님
한국 유일의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가이드북의 저자이시며 인도를 30회 이상 다녀오신 대연스님이 직접 안내와 설명을 하는 성지순례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성지순례는
■ 지도법사스님의 신심나는 설명과 유익한 순례를 약속합니다.
■ 인도불교미술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전문 가이드가 진행합니다.
■ 쇼핑 옵션이 없습니다.
■ 동참하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출발일 : 2022년 11월 22일(화) 동참금 : ₩3,290,000

주요일정
1일 : 인천 - 델리(인도항공 AI 0313) 인천국제공항 1청사 10시 05분 출발
2일 : 델리 - 국내선 - 바라나시 - 초전법륜지 녹야원, 사르나트 박물관 관람
3일 : 바라나시 겐지스강 보트 유람 - 항하사 - 부다가야
4일 : 보드가야 순례, 보리수, 마하보디 대사원, 전정각산, 수자타탑, 네란자라강
5일 : 최초의 사원 죽림정사, 영축산 여래향실, 칠엽굴, 날란다 대학 순례, 바이샬리 도착
6일 : 바이샬리 : 부처님 진신사리탑, 대림정사 중각강당, 원숭이 연못, 아소까 석주 순례, 께사리아 발우탑 순례, 열반성지 꾸시나가르 도착 - 열반지 쿠시나가르 : 열반당
7일 : 쿠시나가르 - 인도 - 네팔 국경 통과 - 부처님의 진신사리탑 랑그람 순례, 룸비니 도착
8일 : 탄생성지 룸비니, 석가족의 왕궁 카필라바스투, 네팔 - 인도 국경 통과, 삐쁘라흐와 진신사리탑 순례, 쉬라바스티 도착
9일 : 기원정사, 사위성, 앙굴리말라 회심처, 천불화현탑 순례 럭나우 경유 아그라 도착
10일 : 타즈마할, 아그라성(城) 관광, 뉴델리로 이동
11일 : 국립박물관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꾸뚭미나르, 연꽃사원, 뉴델리 관광 뉴델리 국제공항 출발(인도항공 AI 0312) 21시 50분
12일 : 인천국제공항도착 08시 15분

문의 :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순례진행 : (주)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특수지역전문 http://www.ajetour.co.kr/